

# 가스충까지 등장 아파트 감투싸움

## 광주 북구 아파트 대표 해임투표 과정서 흥기 대기

### 주민자치회장 선출·위생매립장 보상 놓고 고소·고발도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됐다. 아파트 주민 간 가스충으로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가 하면 고소고발도 예사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가스충과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며 몸싸움을 한 혐의(쌍방폭행)로 모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A(78)씨와 입주자대표회장 B(67)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모 아파트 주민인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A씨는 가스충을 꺼내 들고, B씨는 가위를 들고, 서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싸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주자 대표인 B씨를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가구별 방문 투표를 막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충을 꺼내들었고, B씨도 가위를 들고 대항해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스충 소지 허기증을 가지고 있

으며, B씨는 해임투표를 저지하는 벽보를 붙일 용도로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B씨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지난 13일 현장투표에 이어 이날 가구별 방문 투표를 진행 중이다.

B씨는 방문 투표 진행 과정에 선거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저지했다. B씨는 지난해 취임 이후 아파트관리소장의 급여가 너무 많으며 관리소장 해임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의 한 경비원은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커졌다"면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자치회 감사가 관리소장을 고소했다.

이 아파트 주민자치회 감사인 C(56)씨는 관리소장 D(56)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죄로 지난해 10월 북부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D씨가 지난해 6월 주민자치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장 투표에서 후보자 2명에 대한 표가 4대 4 동수로 나오자 관리소장인 D씨가 '연장자를 회장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연장자 F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북구는 "자치회장선출 규정에 어긋난다"며 집수를 거절하자 D씨는 5

명이 찬성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북구 장등동 장동마을은 주민들간 범정다툼을 진행 중이다.

이 마을은 위생매립장을 유지하는 대가로 광주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통장이 이를 마을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주민과 나눠 사용해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여수산단 또 불** 15일 낮 12시 7분께 여수시 적량동 S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골목 등 일부 시설 철거 작업 중 불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소방서 제공>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 책임 첫 확정

### 대법 "낙태 4천만원·단종 3천만원 배상하라"

대법원이 '소록도 한센인의 비극'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얻어낸 첫번째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가는 한센인 임신중절(낙태) 피해자 10명에게는 각각 4000만원, 정관절제수술(단종) 피해자 9명에게는 각각 3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신체를 직접 침해한 의료행위로 한센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한센인들의 임신·출산을 사실상 금지해 자손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뤄 행복을 추구할 권리, 태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

하거나 제한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국가배상 소송 5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센인에 대한 낙태·단종 수술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시작됐다. 이는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을 때문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정관절제수술을 내걸었다. 소록도뿐 아니라 인천, 익산, 칠곡, 안동 등지에서도 한센인들이 천부적 권리를 잃고 벋속 아이를 떠나보냈다.

당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은 2007년 설치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을 거부하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40여명이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종 피해자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왔으나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8    해질 23:23  
해짐 18:16    맑음 10:16

**밤엔 쌀쌀해요**  
차차 흐려져 밤 늦게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뒤 흐림	-1/15	보성	차차흐려져비	-5/13
목포	차차흐려져비	1/13	순천	차차흐려져비	-1/14
여수	차차흐려져비	3/13	영광	맑음 뒤 흐림	-2/13
나주	차차흐려져비	-5/14	진도	맑음 뒤 흐림	3/13
완도	차차흐려져비	-2/13	전주	맑음 뒤 흐림	0/15
구례	차차흐려져비	-5/14	군산	맑음 뒤 흐림	-3/14
강진	차차흐려져비	-3/14	남원	맑음 뒤 흐림	-4/14
해남	차차흐려져비	-3/14	축산도	차차흐려져비	6/13
장성	맑음 뒤 흐림	-4/14			

◇비다 날씨

시/도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남	0.5~1.0	남	0.5~1.5
남부	남서	남	1.0~2.0	남서	1.5~2.5
남해	남	남서	0.5	남서	0.5~1.5
서부	남(동)	남	0.5~1.0	남서	1.5~2.5
	남(서)	남	1.0~2.5	남서	1.5~2.5

◇생활지수

높음	☀
니출중	☁
매우높음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

◇주간 날씨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	☀	☀	☁	☀	☀	☁
5/7	-2/8	-2/12	4/8	-1/8	1/8	3/8

## 관광객 광주 최다 방문지는 남구

사직·양림동 등 지난해 9월까지 195만명... 체류 시간은 짧아

광주에 온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자치구는 남구와 동구 그리고 주요 방문지는 사직동, 양림동, 충장동 등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관광공사가 광주시 의뢰를 받아 분석한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남구였다. 이 보고서는 통신사(KT)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사(BK) 소비 정보 등을 분석해 이뤄졌다.

주중과 주말별 평균 내국인 관광객수(2016년 9월 기준)는 남구가 195만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는 66만명, 서구 52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체류일수는 남구가 1.8일로 간신히 하루를 넘겼으나 동구 0.9일, 광산구와 서구 각 0.5일, 북구 0.4일에 그쳤다.

남구 주요 방문지는 사직, 양림, 방림2동이다. 동구는 충장, 지산2동, 동명동 그리고 서구는 화정1동, 상무1·2동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남구와 서구가 2900여명과 2800여명으로 비슷했고 동구 1500여명, 북구와 광산구는 800여명과 700여명에 그쳤다.

남성과 20대 방문 비율이 높고 체류비율과 체류시간이 짧았다. 주중에 광주를 찾는 비율이 높고 외국인 방문 비율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였다.

소비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주말 소비가 낮고 남성소비비가 높았으며 비즈니스 방문객의 소비가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동구는 주말과 휴가 소비 비율이 높았으며 서구는 남성중심의 소비지역으로 분석됐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전남 국정교과서 희망학교 '제로'

광주·전남 단 한 곳의 학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우선 사용하게 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전남교육청은 3월 신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의 경우 올해 1학년 수업 과정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48개 고교 모두 연구학교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